

# 한국 최초 여성 장제사 탄생

### 한국경마축산고 14기 졸업생 손혜령씨 장제사 3급 합격

국내 유일의 말산업 마이스터고등학교인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가 큰 일을 해냈다. 금녀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장제 분야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 장제사를 배출한 것이다.

24일 한국경마축산고에 따르면 14기 졸업생 손혜령씨가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한 '제8회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 시험(장제사 3급)'에 당당히 합격했다. 장제사는 말의 편자를 만들거나 말의 건강 상태, 용도 등을 고려해 말굽에 편자를 장착하는 일을 하는 전문 기능공이다.

그동안 국내 경마계에는 기수와 조교사로 활동하는 여성들은 다수 있었으나 거친 도구와 장비를 다루는 장제 분야는 금녀의 영역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2011년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된 지 8년 만에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는 최초의 여성 장제사를 탄생시키는 데에 기여한 것이다. 이는 말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손씨는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교내 장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장제에 대한 매력을 느끼며 장제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발굽 질환으로 안락사당하는 말들을 보면서 가슴 아팠고, 장제의 중요성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했다. 발굽 관리만 잘하더라도 더 오랜 수명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제 분야는 크게 주목하지 못하는 국내 말산업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꾸고 싶다는 포부도 더해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여성 장제사의 꿈을 구체화했고, 2017년 첫 도전에서 실패한 이후 부단한



한국경마축산고 14기 졸업생 손혜령씨가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한 '제8회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 시험(장제사 3급)'에 합격했다.

노력을 통해 이번 성과를 냈다.

올해 5월부터는 한국마사회 장제 교육생으로 활동하며, 실질적인 장제 교육과 실기시험 준비를 병행했다. 체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장제의 영역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끊임없이 준비했으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 최초의 여성 장제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손혜령 씨는 "여자가 장제사에 도전한다고 하니

만류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도움을 준 이들도 정말 많았다"며 "특히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들의 많은 가르침이 있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손씨는 오는 10월까지의 한국마사회 교육생으로 남은 장제 교육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며, 이후 해외 말산업 선진국으로 나가 선진 장제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 남원 수지면, 제14회 민민의 날 성황리에 마쳐

남원시 수지면(면장 하두수)은 최근 수지초에서 제14회 수지 민민의 날 행사를 주민과 향우, 사 회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면 발전협의회(회장 송세환)가 주관하고, 수지면과 면 향우회에서 후원하였으며, 수지면 농악단의 신명나는 농악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체육행사, 한 마당 큰잔치 등이 진행됐다. 또한 수지면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해온 김철(공익장), 유일열(산업장), 정상남(효열장)씨가 영예의 민민의 장을 수상했다. 하두수 면장은 "이번 민민의 날 행사 개최로 민민의 화합을 다지고 수지인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민민이 웃고 머물고 싶은 수지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원광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 치매극복 공모전 수상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작업치료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취업동아리 '드림이'가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에서 주관한 '치매극복의 날' 기념 치매극복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북도광역치매센터는 매년 9월 18일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극복을 기원하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2회를 맞은 치매극복 공모전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치매 가족의 삶의 모습과 기억하고 싶은 치매 어르신의 모습 및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주제로 수기, 홍보 UCC 및 사진 공모전이 이루어졌다. 이번 공모전에서 원광대 의과대학 작업치료학과는 박지현, 유지선 학생이 팀을 이뤄 사진 공모전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익산=장양원 기자

###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 장학금 1천만원 기탁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지부장 이종찬)는 23일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익산사랑장학재단에 7억5천만원을 기탁하는 등 나눔을 통한 익산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금 10,000,000원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식

재무이사 이종찬(가운데)이 지부장 이종찬(왼쪽)에게 장학금 10,000,000원을 기탁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제3회 한옥마을 전극트롯가요제 성료

제3회 한옥마을 전극트롯가요제가 최근 전주 흥남문화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가 주최하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후원한 이 행사는 트롯트가요제를 통한 가수의 꿈을 키워주고 문화예술 활동 무대를 확장에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서원배 전주시 문화정책과장, 박인수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이사장, 김양욱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회장 등 내빈과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가요제와 함께 공로자 표창장 수여식도 병행했다.

김양욱 전북회장은 인사말에서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에서 트롯트 가요제가 더욱 발전하여 트롯트 등용문이 되고 문화예술의 무대를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 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 행사에서 김미남(덕진구)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김재중(진안군)씨와 김정인(완산구)씨는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김재훈 기자

### 제12회 단풍미인배 바둑대회 개최

정음시와 정음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바둑협회가 주관한 제12회 단풍미인배 바둑대회를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 지었다.

대회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날 개회식에는 유진섭 정음시장장을 비롯하여 최낙삼 정음시의장, 김수봉교육장, 이남희, 이도형, 조상중, 기사재 시의원이 참석하여 대회를 더욱 빛내주었다.

이번 바둑대회는 직장부, 일반부(초강,고급,중급), 실버부(고급, 중급, 초급), 학생부(초강, 백호, 청룡, 주작, 현무, 행마, 수달)로 총 4부로 나눠서 진행되었으며 선수 160여명, 임원 및 관계자 40명,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하여 대회가 진행되었다.

/정음=김대환 기자

### 조남철 국수배 학생 바둑선수권 성료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수담동에서 제18회 조남철 국수배 전국학생바둑선수권대회가 최근 성대히 치러졌다.

이 대회는 부안 줄포 출신으로 한국 현대바둑의 개척자인 고 조남철 선생(1923~2006)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부안군바둑협회(회장 노기환)가 주관한 가운데 전국 500여명의 바둑 꿈나무들의 뜨거운 열정이 펼쳐졌다. 특히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 바둑관을 모티브로 신축된 곳이며 수담동 역시 바둑용어 '수담(手談, 서로 미주앉아 말이 없이도 뜻이 통한다는 뜻)'을 따서 지어졌다는 것. 권익현 군수는 "한국 현대바둑의 개척자 이신 조남철 국수의 고향으로 프로기사들이 배출된 대표적인 바둑의 고장이다"며 "많은 바둑 꿈나무들이 조남철 국수의 맥을 이어 미래로 세계로 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진진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9년 11월 25일 (월) (목) (9월 9일)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용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3088-6874	남원지사 602-389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완산지사 010-9842-2725
서산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64
영지지사 010-8845-9855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984	정읍지사 538-3387
	익산지사 010-6789-0038	남원지사 602-3896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823	부안지사 010-2425-419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